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 “기소독점권 남용하는 검찰의 횡포, 도를 넘었다”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다.

“과연 현재 공권력이 정당한 법의 집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법치 파괴’의 전형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법치 파괴’는 따로 있다.

최근 수원대 교수 파면·취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검찰 수사에서 외면당한 이인수 총장 비리 중 상당수를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해 법을 우롱한 법치파괴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수원대는 교육사업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종편에 50억을 출자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을 특채로 임용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인 여기자가 용기를 내 고소했지만 시간만 질질 끌다 ‘강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회장인 기업그룹의 계열사에서 시위하던 노동자에 대해 빌딩 점거를 이유로 구속기소한 뒤 지난 24일 6년형을 구형했다. 최근 5년간 5738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구속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동료의 죽음에 항의하던 노동자에게 유독 가혹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공권력이 균형을 잃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한 법치국가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김현웅 장관은 법치국가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법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뿐 존중 따위는 하지 않는 권력, 이 권력에게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제군주국가일 뿐이다.

###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발언이었다. 경찰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나섰던 어제 오후 불법 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다시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 문제로 나선 게 이달에만 세 번째다.

○...“범죄 수사가 목적이 되기 보다는 민주노총이 불법적인,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였다. 경찰은 어제 민주노총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이후 경찰이 피의 사실과 관련이 확인도 되지 않은 압수품을 일반에 공개했다.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해보인다.

○...“그때(30일 처리)가 안 되면 한중 FTA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이었다. 여야가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그날이 ‘마지노선’이라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우선 주말 동안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 [한겨레] 김용주의 발언이 가장 길고 고약했더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친일 문제를 다룬 <한겨레> 8월1일자 토요일 커버스토리. 김무성 대표는 그 기사가 근거로 내세운 일제 강점기 <매일신보>와 ‘전선공직자대회’ 기록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다. 통상 진짜 억울하면 기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거는 게 가장 현명한 수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김용주의 친일을 입증하는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자식으로서 그저 인정하고 넘어가면 문제 삼는 이가 면구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왜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그 많은 증거들을 무슨 수로 덮으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일제 강점기 <매일신보>와 ‘전선공직자대회’ 기록 둘 다 ‘허위’라는 것이다. 두 기록이 거짓이라면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는 한겨레 기사도 ‘오보’가 된다. 하지만 두 기록은 역사학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식 문서도 인정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발행되던 한국어 일간신문이다. 김 대표는 매일신보에 대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과장 보도는 물론 왜곡·날조까지 일삼았던 신문”이기에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매일신보가 친일파 아닌 사람을 친일파로 만들었다는 얘기?

<한겨레>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별도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 우선은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1차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보다 선친의 친일 문제를 ‘진실의 영역’이 아닌 ‘분쟁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조선 동아일보 신문사 설립자의 친일 행위가 분명하지만 두 신문 설립자 후손은 소송을 냈다. 재판은 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2년 남았다. 선친의 친일 문제에 대해 무수한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러면 된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자.” 도피처가 생긴 것이다.

## [중앙일보] 뭉치는 상도동계 … 200명 갈비탕 뒤 풀이 “자주 모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식이 끝난 뒤 서울 강남의 대형 식당에 상도동계 인사들이 모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야권 인사가 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도 모였다. 손 전 고문이 “역시 어른답게 돌아가시면서 단칼에 명예 회복을 하신다”고 말해 웃음바다가 됐다고.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YS 측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향후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표출될지도 ‘포스트 조문정국’의 관심사다. 김무성 대표의 처신이다. 새누리당 내엔 “할 일이 태산인데 여당 대표가 5일장 내내 장례식장에 살았다”는 불만이 청와대에 쌓였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 [경향신문] 문민정부 ‘소통령’ 김현철 씨,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촉각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아들’에 가려졌던 ‘진짜 아들’ 김현철 씨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관심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다. 현철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세상에는 마땅한 때가 있는 것 같다. (아버지에 대한) 너무 늦어버린 찬사에 그저 가슴이 미어진다”고 쓴 것은 의미심장하다. 19대 총선과 2013년 재·보궐선거에도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점은 만큼 ‘의지는 충분하다’는 게 주변 반응이다. 최근 행보는 ‘고향’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부쩍 가까워져 있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맹비난하는 등 여당 재입당은 명분이 약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아버님은 이 시대가 절박하게 필요한 ‘통합과 화합’을 병행이 중한 가운데 필담으로 남기셨다. 더는 때

를 놓치지 말라는 절실한 마음이 전해온다”고 남겼다. 또 전날 발인 예배 때 “민주화가 다시 불타는 조짐”이라고 말한 것도 ‘야당행’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을 낳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도 서울 동작을, 경남 거제, 부산 등 구체적 출마 지역이 거론된다.

## [조선일보] 김무성 “내달 5일 민노총 집회 불허해야”

주요 신문 방송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판단하고 불허 방침을 내비친 사실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격할 불법 투쟁만 일삼는 민노총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12월 5일 53개 노동 단체가 다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를 불허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1면에 다뤘다. 김무성 발언에 뉴스 가치를 실어주는 의도는 무엇일까.

## [한겨레] 민주노총 “평화집회” 선언…정부는 조계종 중재도 거부

“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롭게, 즐겁게, 명쾌하게 할 것이다.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믿어도 좋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로운 집회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총궐기 본부는 이날 2차 민중총궐기를 실질적인 평화집회로 만들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모으고 있다. 조병옥 민주노총기 대변인은 “꽃을 들고 나가서 경찰 차벽에 꽃을 꽂는 것부터 ‘복면금지법’에 대한 반대 뜻을 담아 다양한 복면을 착용하고 무도회를 여는 방안 등 2차 총궐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쟁본부 쪽에선 예술인들과 함께 집회에 문화공연을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누군가 전경버스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폭발시킵니다. 그렇다면 시위대는 그 수가 몇 만이 됐든 ‘한국의 IS’가 됩니다. ‘IS, 시위대 탐바구니에 침투해 테러 감행’ 이런 헤드라인도 가능하겠지요. 이 폐북 게시물에 성지순례객이 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중앙일보] [이훈범의 생각지도]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

이훈범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글이다.

“폭력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건 말이 필요 없다. 복면을 쓰고 행한 폭력은 더욱 엄중히 처벌돼 마땅하다. 그렇다고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찬성하기 어렵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게 반대의 이유다. 더 큰 이유가 따로 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게 두려운 까닭이다. 복면이 폭력을 증

폭한다고 모든 복면을 폭력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건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도 그런 사고에서 출발했다. 국가 목표에 방해가 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얼마든지 유보할 수 있었던 국가 폭력이란 얘기다. 영면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장 고마워하는 게 뭐냐. 그 암울한 시대의 무게를 어깨에서 내려준 것 아니었는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긴 싫다. 한줌밖에 안 되는 폭력시위꾼들 없애겠다고 훨씬 거대한 국가 폭력의 품 안으로 들어가긴 싫단 말이다.

폭력시위꾼들과 같은 시위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배워야 한다. 수만 명의 시민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알아야 한다. 교과서가 문제 있다고 국정으로 바꿔버리는 권위주의 사고를 거부하는 거다. 그것을 복면금지 같은 또 다른 권위주의로 막겠다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국가의 폭력은 복면 없이도 쇠파이프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 [조선일보] 안, 문재인 제안 거부하고 '제3의 카드' 제시할 듯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부 제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문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 '제3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에서는 그 방안 중 하나로 "호남 겨안기를 명분으로 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을 제안하자"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의 한 측근은 "천 의원과 '지금의 야당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한 주변 인사들의 생각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 기회에 탈당하자" "(당대표를 다시 뽑는) 통합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하라" "아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런 얘기에 대해 "지금은 당 혁신이 우선"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아베, 경기부양 위해 복지확대 나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아베노믹스' 2기 정책의 구체안을 발표했다. 1기 정책의 핵심이었던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 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복지와 분배로 방점을 옮긴 점이 눈길을 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1000만 명에게 3만 엔 즉 약 28만원씩 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대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50만 명분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양로시설도 2020년까지 50만 명분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급여를 현재의 임금의 40%에서 67%로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3조엔 약 28조원으로 예상된다.

## [한겨레] 파리 시민만 시민인가

정문태 국제분쟁 전문가의 이 글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파리 희생자는 13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만도 4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파리 사건 한 달 보름 전인 9월28일로 돌아가 보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9개 아랍다국적군은 예멘 해안도시 모카의 한 음식점을 공습해서 여성 80여명을 포함한 민간인 131명을 살해했다. 그 학살사건은 “공습한 적 없다”는 사우디 정부 발뺌 한마디로 끝났다. 거기엔 수사도 조사도 없었다. 정치인들의 묵념 따위도 없었다. 그 흔해빠진 촛불 하나 밝힌 곳도 없었다. 국제 언론도 데면데면 흘려 넘겼다.

파리 시민 130명 목숨과 모카 시민 131명 목숨은 그렇게 달랐다. 우리는 파리 시민 목숨이 소중하듯이 모카 시민이나 카불 시민이나 서울 시민 목숨 하나하나도 똑같이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귀 닦도록 배워왔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에 맞선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뒤부터 살해당한 민간인이 1만8000여명에 이른다. 2003년 미군의 제2차 이라크 침공 뒤 2015년까지 50만 명을 웃도는 시민이 희생당했다. 2011년 미군과 나토군의 리비아 공습 뒤부터 시민 3만여 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전쟁에 개입하고부터 올 10월까지 4년 동안 최대 34만여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다국적군이 8개월째 소리 없는 학살전을 벌여온 예멘에서는 시민 2700여명이 살해당했다. 그렇게 100만 시민이 학살당하는 동안에도 이 세상은 아무 말이 없었다.”

## [한국일보] 핵심 국정원 직원 증인채택 취소... 재판부, 원세훈 봐주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사건핵심 증인인 국정원 직원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지 하루만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 측에 유리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외압 무죄’ 판결문의 증거 제출을 제언해 ‘기울어진 재판 진행’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시철 부장판사, 아직 기억 속에서 그 이름 안 지우셨겠지?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김시철 부장판사 이름 외우시라.

## [조선일보] [단독] "회사에서 스마트폰 보면 조인트 까겠다"는 삼성 임원,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삼성계열사의 한 임원이 일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 “(나한테 걸리면 귀싸대기 때리고 조인트 까고) 스마트폰 뺏어버린다고 공지하라고 했어요” 최근 삼성계열사의 고위임원이 일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이 퍼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임원은 지난달 27일에 보낸 ‘젊은 친구들 버릇을 좀 고칩시다’라는 제목의 메일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 눈에 띄니까, 젊은 철딱서니 없는 친구들 사내 이동 간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다니는 것인



테요"라며 "업무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도 뵈할 판에 정신이 저런데 팔려있으니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걱정도 많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한테 걸리면 귀싸대기 때리고 조인트 까고) 스마트폰 뺏어 버린다'고 공지하라고 했어요. 다른 본부에서도 동참해 주었으면 하고요"라고도 했다.

## ■ 오늘의 날씨

내일 아침까지는 꽤 춥다가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 10도, 대구 10도가 되겠다. 다음 주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 이어지겠고,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국일보에 실린 최진주 기자의 "종편의 네 가지 '파괴적 혁신'"이란 제목의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오는 12월 1일이면 종편이 출범한 지 4년이 된다.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JTBC를 제외하면, 그 동안 3개의 종편 채널은 우리나라 미디어업계에 네 가지 파괴적 혁신을 가져왔다.



첫째, 시청률을 위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출연자를 섭외하는 혁신이다. 가수 장윤정의 가족이 장 씨를 비난하자 채널A는 가족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낸 후 "장윤정씨 억울하면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MBN은 최근 강용석 전 의원과 불륜 의혹이 일었던 블로거를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시켰다. '모든 분야 전문가'인 패널들은 채널을 가리지 않고 겹치기 출연을 한다.



둘째, 단독 보도의 혁신이다. [긴급("김무성)딸, 32년 동안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어" [단독]유대균, 소심한 목소리로 뼈 없는 치킨 주문" [단독]유대균"배달음식 시킨 적 없다". 모두 인터넷에서 술한 화제를 불러 모은 혁신적 단독 기사다. 성완중 씨가 여당 의원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성완중과 이완구의 '이름 공합'을 내보낸 것도 세계 어느 언론사도 생각 못한 혁신적 발상이다.



셋째, 북한 관련 보도 혁신이다. 종편에는 하루 종일 북한과 김정은 이야기가 나온다. '형광등 100개를 켜 듯 한 아우라'와 '겨울왕국 엘사와의 공통점'까지 갖고 있는 대통령보다 단골 메뉴인 것 같다. 지난달 북한 인민군 열병식은 하루 종일 생중계했다.

넷째, 수익모델의 혁신이다. 몸에 좋은 식품 얘기에 쉽게 혹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홍보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협찬으로 제작되는 이 프로그램에선 이른바 '쇼닥터'라 불리는 한의사, 의사들을 동원해 특정 원료의 효능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방송이 끝날 때쯤 인접 홈쇼핑 채널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일이 일어난다.

네 가지 혁신은 모두 60~70대라는 열혈 시청자 층을 발굴함으로써 가능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시청자는 70%가량이 하루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며, 이중 약 15%는 4시간 이상 시청한다. 기껏해야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잠깐씩 보거나 시간 날 때 '다시 보기'로 보는 젊은 층과는 차원이 다른 시청자 층이다.

물론 그런 날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30, 40대가 나이를 먹어 50, 60대가 됐을 때 현재와 같은 종편의 열혈 시청자로 돌변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그전까지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막말 방송의 행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걸까."

■ 매일 월~금까지 저녁 6시대에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방과후 학교' 지식라디오가 12월 1일 낮 12시 첫 방송을 내보냅니다. (팟빵앱에서 만나세요.)

■ 김용민 브리핑 광고 및 기타 문의는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을 이용해주세요.